

-(으)ㄹ 따름이다

~할 따름이다, 그저 ~일 뿐이다

-(으)ㄹ 뿐이다의 격식체입니다. 연설, 공식 발표, 사과문에서 볼 수 있으며 그 밖에서는 드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ㄹ 따름이다	감사하다 → 감사할 따름입니다
받침 있음	-을 따름이다	믿다 → 믿을 따름입니다
ㄹ 받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따름입니다
관용 표현	감사할, 안타까울	죄송할 따름입니다
띄어쓰기	따름은 명사	감사할 따름입니다
일상 표현	-(으)ㄹ 뿐이다	감사할 뿐이에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르며 ㄹ 받침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. 만들다는 만들 따름이다가 됩니다. 따름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뿐이다와 마찬가지로 말하는 내용을 한 가지로 한정하고 맺습니다. 차이는 격식입니다. 따름이라는 격식체에만 쓰며, 편한 자리에서 쓰면 과장되게 들립니다.

쓰임의 대부분은 몇 가지 관용 표현입니다: 감사할 따름입니다, 안타까울 따름입니다, 죄송할 따름입니다. 이것들은 통째로 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

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: 그저 기다릴 따름입니다.

■ 예문

- 1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.
- 2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
- 3 저는 맡은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.
- 4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기다릴 따름입니다.
- 5 불편을 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.
- 6 저희는 좋은 제품을 만들 따름입니다.

■ 비교

-(으)ㄹ 뿐이다

뜻은 같고 격식이 다릅니다. 뿐이다는 어디서나 쓸 수 있고, 따름이라는 문장을 격식체로 만듭니다.

감사할 뿐이에요. (구어) / 감사할 따름입니다. (공식 발언)

-에 불과하다

불과하다는 논의에서 명사를 낮추어 평가하고, 따름이라는 서술어를 한정하며 겸손이나 무력감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.

소문에 불과합니다. (소문일 뿐이다) / 기다릴 따름입니다. (기다릴 수밖에 없다)

-(으)ㄹ 수밖에 없다

수밖에 없다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평이하게 말하고, 따름이라는 같은 내용을 더 절제되고 격식 있게 말합니다.

기다릴 수밖에 없어요. / 기다릴 따름입니다.

■ 주의

✗ 저희는 좋은 제품을 만들을 따름입니다.

○ 저희는 좋은 제품을 만들 따름입니다.

ㄹ 받침 어간은 이미 ㄹ이 있으므로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에요처럼 씁니다.

✗ 아, 나는 그냥 갈 따름이야.

○ 아, 나는 그냥 갈 뿐이야.

따름이라는 격식체입니다. 친구 사이에서 쓰면 기자 회견문처럼 들립니다.

✗ 그저 감사할따름입니다.

○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.

따름은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 띄어 씁니다.